

양돈산업 위기에 따른 한국양돈산업의 대응

1. 서론

지난주 장·차관 워크샵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여러번 강조했다. 원유가격이 배럴 당 100달러를 넘어갔고,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철강원료 등 각종 원자재가격의 상승, 원화 가치의 하락, 세계 금융시장의 위축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내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50개 품목의 물가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정부는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경제 상황 하에서 사료가격은 계속 상승하였으나 향후 떨어질 전망은 보이지 않고, 돼지값은 계절적으로 성수기가 다가오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다 소모성 질병 등 각종 질병은 양돈농가를 엄습하고 있다. 게다가 4월 대통령 방미와 맞물려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 개방이 되면 돼지고기 소비에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관 항상 좋을 수도, 항상 나쁠 수도 없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가야 한다. 내리막길로 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 선진국으로 가는 원년을 선포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분야 특히 축산분야도 선진국형으로 발전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모두가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노 경 상 원장
축산경제연구원

2. 사료곡물의 수급추이와 가격 상승요인

세계 곡물 수급은 1990년대 이후 생산 증가가 소비 증가를 따라잡지 못해

재고가 15%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곡물 수급이 심하게 불안정해진다. 최근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에 있다.

2007년에 OECD-FAO에서 발표한 「농업전망 2007-2016」 국제곡물가격 전망에 따르면, 곡물의 바이오에너지용 원료로의 사용 증가와 과거의 정책 개혁으로 인한 곡물 잉여 감소 등으로 향후 10년간 농산물 가격은 과거의 균형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국제곡물가격과 연동되어지는 사료가격도 현재의 급등 추세는 향후, 현재보다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지속하거나, 당분간 상승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다. 실제, 국내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은 2004년 377원/kg에서 2007년 406원/kg 크게 상승하였으며 옥수수 국제가격도 바이오 에탄올 수요 증가로 인해 2006년 상반기에 톤당 130~140달러 하던 가격이 2007년 말에는 톤당 300달러, 2008년 2월에는 350달러 수준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곡물가격상승의 원인을 보면 과거의 가격상승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요약될 수 있다.

가. 석유자원 고갈과 지구온난화의 방지로 인한 대체 연료인 바이오 에탄올용 곡물 수요의 증가로 인해, 과거 식용-사료용 수요 경쟁에서 '식용-사료용-에너지용'의 3각 경쟁구도로 확대되어 2000년부터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 브라질, EU, 중국, 인도 등에서 대폭적인 바이오연료의 증산계획으로 향후 가격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나. 신흥개도국 특히, 중국, 인도 등에서 1차 상품 수요 급증으로 가히 '자원전쟁'이라고 할 정도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에 투기 자본이 가세함으로써 곡물을 포함한 1차 상품의

가격폭등을 가속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흥개도국의 소득수준이 증가되면서 식품 소비 중 축산물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곡물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 1차상품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가간 물동량 증가가 해상운임에 영향을 미쳐 곡물가격 인상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곡물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현상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향후 계속적으로 이어질 현상들이고,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모든 나라들의 문제이다.

3. 한국 양돈산업의 대응전략

이와 같은 사료가격 인상과 함께 한·미 FTA, 한·EU FTA, DDA 등의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위기감과 국내돈육의 수요감소, 소모성질병으로 인한 피해로 우리의 양돈산업의 존립여부가 위협을 받고 있다. 양돈산업 최대의 위기 속에 양돈농가, 협동조합, 사료회사, 협회, 학계, 정부, 언론계 등의 총체적인 노력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가. 양돈농가의 노력

우선 양돈농가는 경영분석을 해봐야 한다. 만약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경영상태를 기록하고 가능한한 전산화를 해야 할 것이다. 그 경영분석 결과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사료배합비율은 적정인지, 비육돈 사료를 계속 급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생제 대신 미생물 제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지, 이유시기는 너무 빠르지는 않은지, 출하시기와 출하처는 괜찮은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체크해 봐야 할 것이다.

소모성 질병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환경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축사와 분뇨처리가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질병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가능하다면 신축을 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것이 어려우면 Depopulation이라는 것 즉, 일정기간 돈사를 비웠다가 깨끗이 청소하여 병원균을 제거한 후에 입식을 시키는 방법이다. 적어도 all-in, all-out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MSY를 최소한 경쟁국인 미국, 유럽과 같이 18두 이상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목표는 20두로 하고 적어도 18두는 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농가단위로 수입회사 즉, IBP, 몽포드 같은 다국적 대기업과 경쟁하기 어렵다. 어떤 형태이든지 경영체 중심으로 뭉쳐야한다. 다국적 기업은 전세계적인 정보를 쥐고 있으며 자본과 기술이 우리 농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개별농가로서 이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영체 단위를 한다하더라도 경쟁이 어려우므로, 양돈조합은 하나의 조합으로 합병하고 영농조합은 가능한 지역 단위로 뭉치며 개별회사는 M&A를 통해 규모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농가가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형편이 되는 농가는 그런 방향으로 뭉쳐야 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경영체는 종돈, 사육, 도축, 가공, 유통을 일원화하여 통합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각 단계가 떨어져 있으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의 스펙을 만들어 낼 수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각 단계마다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 똑같이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위생 안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제품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소매점이나 소비자는 안전과

균일성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정성이 녹아든 '이미지'를 더하여 최대의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우리 돼지고기를 제공하면 돌덩어리 같은 수입냉동 돼지고기를 이길 수 있다. 제품과 이미지를 최대의 서비스로 팔면 우리 양돈은 희망이 있다.

나. 사료업계의 노력

사료회사는 사료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영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과다 인건비를 줄이고, 대리점판매를 인터넷을 통한 판매로 전향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농협사료는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속적인 옥수수 대체연료생산원료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옥수수주정박(DDGs) 등의 대체원료 확보방안과 이를 이용한 사양표준의 조기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제주도의 감귤껍질 활용, 음식물 쓰레기 및 식품회사의 부산물, 버섯 부산물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양축가는 죽는데 사료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다. 정부의 노력

1) 세제지원

정부는 수입사료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1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적용토록 하였으나, 나머지 전 품목에 대하여도 조기에 전면적으로 무관세적용토록 조치해야 하며,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도 2008년 12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연장 적용하였으나, 항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영체 지원을 위해서 농업경영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경영체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축산 법인이 포함되도록 '중소기업 기준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각종 조세 감면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시설자금지원은 개보수를 위한 자금보다는 신규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는 소모성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이 될 것이다.

2) 사료원료곡물의 확보

장기적으로는 높은 사료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사료원료곡을 확보할 수 있는냐가 문제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간척지에 조사료재배를 적극 추진하고 청보리 재배를 대대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며 한계농지나 휴경지는 사료곡물재배를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

3) 해외자원 개척

다음은 해외로 진출하는 방법이다. 국제곡물가격은 시카고 선물시장을 통해서 몇 개의 곡물메이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능한 한 이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야한다. 곡물의 저장·운송 인프라가 안되어 있다면 치더라도 최소의 비용으로 설치 가능한 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작물의 재배에 적합한 기후, 풍토, 토양을 고려할 것은 말할 것 없고, 해외개발은 민간기업만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간에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양국이 이익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국제협약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

4) 식량자원은 국가안보의 문제

곡물문제는 석유문제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사료문제의 해결차원이 아닌 「식량자원」이라는 차원에서 정부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양국이 외교적으로 곡물생산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상호계약을 맺어 이행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그 국가의 지역개발에 공헌해야 하고 그 주민의 삶과 연계되어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단순한 식량생산기지로 생각하면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현재 여러 회사들이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 시장조사 내지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선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민간기업이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하겠다는 식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자원외교」의 한 축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석유나 산업원자재만 자원외교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의 식품에너지원확보를 위한 자원외교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다른 산업에 밀려서 식품에너지는 다소 밀려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4. 결 론

사료가격 인상은 우리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이기에 우리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어려울때 경쟁력을 다져서 해외로 뻗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환경을 개선하고 질병을 해결하여 MSY를 18두로 올려야 한다. 또한 안심, 등심을 수출하고, 저지방육(비선호부위)은 요리개발을 통해 국내 소비를 촉진시키면 전 농축산물 중에서 생산액 3위를 1위로 끌어 올릴 수 있다.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관련산업, 정부, 학계, 언론이 모두가 우리 일이라 생각하고 세계를 향해 전진하면 양돈 1등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돈**